

2025년 6월 13일

여한구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39-012
대한민국

여 장관님께:

ACT| 앱협회는 귀하께서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한국 당국이 국제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한국 혁신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력하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구조는 소비자 및 기업 시장에서 혁신을 이루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성공에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업들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속적인 투자,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국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APEC 무역장관회의를 포함하여 미국과의 상호 무역 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귀하의 지속적인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는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주요 비관세 장벽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희 앱 협회는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천 중소기업 혁신가와 스타트업을 대표합니다.¹ 세계가 모바일 기술을 수용함에 따라, 저희 회원사들은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학업 성취를 가속화하며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앱 경제는 연간 약 10,928조 원의 가치를 지니며 516,000개 이상의 한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위한 시장 개방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 고무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이 디지털 경제의 주요 과제들에 대한 긴밀한 공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귀하께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며 디지털 무역 정책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한국 중소 혁신기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협정으로 한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저희는 대한민국이 현재 추진 중인 차별적 디지털 플랫폼 시장 규제안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규제안은 한국 내 투자와 혁신 증진이라는 목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 그리고 최근 APEC 무역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약속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선도적인 ‘크레이티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COM)는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큰 시장에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게 해주며 더 큰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우선 무역을 지원하는 조치로서 대한민국이 기존 경쟁 메커니즘에 따라 COM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COM을 포함한

¹ ACT| 앱 협회, 소개 사이트: <http://actonline.org/about>.

광범위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조사 및 문의와 같은 규제 관행을 피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COM이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저회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와 이에 의존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기반이 되는 COM에 대한 한국 경쟁법과 그 적용을 재구성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PMRA)과 같은 제안된 조치들은 둘 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크게 영향을 받아, 한국의 디지털 경제를 견인해온 '역동성'을 억누를 사전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혁신을 촉진하고 소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 제품 우대'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개입 성향의 제도는 실제로는 반대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DMA의 규제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안은 플랫폼 주도의 혁신적이고 친경쟁적인 이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한국 소비자의 혜택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회가 작년 초 포괄적인 사전 독점금지 개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PPP)은 그 이후 오늘날의 초경쟁적인 앱 경제를 뒤엎고, 플랫폼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며 운영 유연성을 감소시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에 대한 부분 개정안을 도입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비용은 앱 협회의 중소기업 혁신가 회원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회원들은 또한 COM에서 의존해왔던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검증, 사이버 보안 위험 완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장애인 접근성 기능 지원 등의 핵심 서비스들의 효과를 크게 또는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부적절한 플랫폼 규제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진행 중인 협상에서 대한민국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운영을 제한하고 사실상 미국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정상적이고 유익한 비즈니스 관행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² 또한, 미국 의회에는 이미 대한민국의 새로운 차별적 디지털 경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대한민국 디지털 무역 집행법'과 같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³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더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모두에게 가도록 보장한다”는 APEC 내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약속에 반하는 것입니다.⁴ 특히 기존 한국 경쟁법으로도 실질적인 경쟁 우려와 피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경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 이행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특히 디지털 거래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 신뢰를 강화한다는 AIDER의 핵심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앱 협회 회원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입 정책 추진은 규제와 경쟁에 관한 미국의 접근 방식과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전반적인 한미 동맹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의 가능성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접근법을 재고해야 할

² <https://www.chosun.com/english/industry-en/2024/12/19/ZMLPRZXJTBNBJ7NY5PXVVJBH4A/>.

³ <https://drive.google.com/file/d/18rfZ74iKJbTa5EgtJZfKJlpXeGTyqB-/view?pli=1>.

⁴ <https://www.apec.org/meeting-papers/sectoral-ministerial-meetings/trade/2025-apec-ministers-responsible-for-trade-joint-statement>.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새로운 한미 상호 무역 협정은 COM에 의존하여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 디지털 경제의 영세·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양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귀하께 (1) 대한민국 정부 전반의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COM에 이롭지 않은 사전 규제안의 시행 요구에 저항해 주시고 (2)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차별, 투명성, 적절한 통지 및 협의에 대한 약속을 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혁신을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의 스타트업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한국의 경제 안보와 경쟁력 강화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동시에, 혁신 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을 고려해 주시고 한국의 영세·중소기업들의 성공을 강화하는 강력한 무역 정책을 지지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직접 만나뵙고 저희의 견해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귀하의 사명을 뒷받침할 추가적 방안을 파악할 기회가 있기를 고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건 리드(Morgan Reed)
협회장

ACT | The App Association
1401 K St NW (Ste 501)
Washington, DC 20005